

한국의 유교문화와 천군서사(天君敍事)

- <천군본기>(天君本紀)의 경우

김수영*

1. 서론
2. ‘천군서사’(天君敍事)의 개념
3. <천군본기> 글쓰기 방식의 특징
4. 19세기 한국의 유교문화와 <천군본기>
- 결론을 곁하여

1. 서론

한국의 유교문화는 어떠한 특수성을 지니는가? 한국의 유교문화는 동아시아 공통의 유산으로서의 중국의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오백여 년의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한국의 유교문화는 중국과 다른, 또한 일본과도 다른 고유한 결실을 맺어왔다.

이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천군서사’(天君敍事)가 대표적으로 한국 유교문화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천군서사’란 알레고리를 활용하여 성리학(性理學的) 심성론(心性論)을 서사화한 작품을 일컫는 용어이다.¹⁾ 즉, 전근대 한국의 성리학에서 주요한 탐구 대상으로 다루어진 ‘마음’이라는 대상을, 문학의 새로운 제재로서 적극 활용한 양식이 천군서사이다. 천군서사의 창작은 동아시아에서 유교문화를 공유해 온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한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 인하대학교 인문학부 강사

1) ‘천군서사’라는 용어는 김수영, 『天君紀 研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10면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본고의 제2장에서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천군서사는 16세기 무렵부터 조선의 사대부들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해 온 문화적 배경 하에 창작되어 온바, 한국의 유교문화가 배태한 특수한 문학 양식이다.²⁾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창작된 천군서사의 초기작으로는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옥부>(屋賦), 김안로(金安老, 1481~1537)의 <성의관기>(誠義關記), 홍성민(洪聖民, 1536~1594)의 <천군견지수공수성>(天君遣志帥攻愁城) 등의 작품이 있다. 천군서사의 초기작들은 마음을 구성하는 추상적 요소 및 마음의 여러 상태와 작용을 다양한 인물로 의인화(擬人化)하거나 의공간화(擬空間化)하는 다채로운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16세기에 후반에는 천군서사의 본격적 정립으로 평가될 수 있는 김우옹(金宇顒, 1540~1603)의 <천군전>(天君傳)이 창작되었다. 또한 그로부터 얼마 뒤에 임제(林悌, 1549~1587)가 <천군전>의 심성론적 주제에 대해 비판적인 문제를 제기한 <수성지>(愁城誌)를 지었다. 한편 17세기에 들어와서는 그간 축적된 천군서사의 전통 속에서 황중윤(黃中允, 1566~1648)이 <천군기>라는 장편의 천군서사를 처음으로 창작하였다. 이 작품은 정태제(鄭泰齊, 1612~1669)에 의해 <천군연의>로 변개(變改)되었다.³⁾ 이와 같은 천군서사의 창작은 19세기까지 면면히 이어졌으며, 그 중 장편 작품으로서 정기화(鄭琦和, 1786~1840)의 <천군본기>와 유치구(柳致球, 1793~1854)의 <천군실록>(天君實錄)이 알려져 있다.

필자는 최근 황중윤의 <천군기>(天君紀)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논의 과정에서 김우옹의 <천군전>과 임제의 <수성지>에 대해서도 고구(考究)하였다.⁴⁾ 그렇지만 <천군기> ‘이후’의 장편 천군서사인 <천군본기> 및 <천군실록>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 유교문화의 소중한 성과인 천군서사의 문학사적, 사상사적 의미와 위상을 통시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19세기에 창작된 이 두 작품에 대한 본격적

2) 金建人, 「天君小說與心性學」(『韓中人文科學研究』 8, 韓中人文科學研究會, 2002), 122~128면;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돌베개, 2008), 52~54면 참조.

3) 김수영, 앞의 논문, 제VI장에서 <천군기>와의 비교를 통해, 정태제의 <천군연의>가 <천군기>의 후대적 변개(變改)라는 사실 및 변개의 주요 양상이 논증되었다.

4) 김수영, 「『天君紀』 研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그 후속 연구로서 먼저 <천군본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천군본기>에 대한 선행 연구는 비교적 소략한 편이다.⁵⁾ 이러한 연구 상황은, <천군본기>가 19세기 초엽에 씌어졌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즉, 이 작품이 천군서사의 창작 방법이 다채롭게 모색되던 16, 17세기 보다 후대에 창작된바, 천군서사의 대표작으로 보기보다는 아류작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았고, 그 결과 <천군본기>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고찰하는 작업 또한 유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천군서사의 사적(史的) 전개(展開)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점에 유의한 <천군본기>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첫째, <천군본기>는 전대의 천군서사에 대해 ‘대타적(對他的)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천군본기> 글쓰기 방식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천군본기>는 특히 ‘지식’[知]에 대한 독특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 점은 천군서사의 새로운 창작 방향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점이지만, 19세기 한국 유교문화의 어떤 지향점과도 모종의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를 통해 일차적으로 <천군본기>의 문학적 특질 및 천군서사사(天君敍事史)에서의 그 위상과 의의가 새롭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본고가 천군서사 전반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고찰의 일환으로서 한국의 유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 ‘천군서사’(天君敍事)의 개념

<천군본기>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이 장에서는 먼저 ‘천군서

5) <천군본기>에 대한 선행 작품론으로는 김광순, 「天君本紀에 대하여」(『국어국문학』 78, 국어국문학회, 1978); 조현우, 「천군본기 연구」(『국제어문』 37, 국제어문학회, 2006)가 있다.

사’(天君敍事)의 개념에 대해 논의해 두고자 한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천군본기>에 대한 본고의 고찰은 천군서사의 사적(史的) 전개(展開)라는 큰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이 작품의 위상과 의의를 밝히고자 하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 이와 같은 본고의 역사적 접근 방식은, 필자가 이론적으로 ‘천군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필자는 천군서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천군서사(天君敍事)는 알레고리를 활용하여 성리학적(性理學的) 심성론(心性論)을 서사화한 작품이다.⁶⁾

‘천군서사’라는 용어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해 온 ‘심성가전’(心性假傳), ‘천군소설’(天君小說), ‘심성우언’(心性寓言) 등의 용어와 개념적으로 큰 공통분모를 지니지만 합치되지는 않는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해 온 용어들은 연구자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여전히 유의미하지만, 몇 가지 사용상의 제약을 지닌다. 그러므로 먼저 위의 세 가지 용어에 대해 검토한 다음, ‘천군서사’라는 용어를 취하는 경우 방법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새로이 기대되는가를 논하고자 한다.

‘심성-가전’, ‘천군-소설’, ‘심성-우언’이라는 용어 모두에서 앞부분은 작품의 ‘제재’에 대한 규정이고, 뒷부분은 ‘장르’ 내지 ‘양식’에 대한 규정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먼저 차이가 큰 뒷부분부터 검토해 보자.

‘가전’(假傳), ‘소설’(小說), ‘우언’(寓言) 중에서, ‘가전’과 ‘소설’은 장르에 해당하고, ‘우언’은 양식에 가깝다.

먼저 ‘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를 보면, 명백하게 가전 장르에 포함되지 않는 작품까지 가전으로 통칭한 문제가 종종 확인된다. 안병설 교수의 「이조(李朝) 심성가전(心性假傳)의 전개(展開)와 그 성격(性格)」에서는 남효온의 <수향기>(睡鄕記), 임제의 <수성지>, 임영(林泳)의 <의승기>(義勝記), 정태제의 <천군연의>, 정기화의 <천군본기>를 모두 ‘심성가전’으

6) 김수영, 앞의 논문, 10면.

로 칭하였으나,⁷⁾ 이 작품들은 장르상 기(記)나 소설에 해당하며, 가전 장르에 속하지 않는다. 이동근 교수의 「조선조(朝鮮朝) 심성가전(心性假傳)의 연구(研究)」에서도 남효온의 <수향기>, 임영의 <의승기>, 정태제의 <천군연의>, 정기화의 <천군본기>, 유치구의 <천군실록>을 모두 ‘심성가전’으로 칭하였으나,⁸⁾ 이 분류 역시 적합하지 않다. 이렇듯 ‘심성가전’이라는 용어는 김우옹의 <천군전>을 위시한 일부 작품을 일컫는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그 외 명백히 가전이 아닌 작품들까지 포괄적으로 일컫는 데에는 난점이 있다.

다음으로 ‘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와 흡사하게, 소설 장르에 포함되지 않는 작품까지 소설로 통칭한 문제가 확인된다. ‘천군소설’(天君小說)이라는 용어는 김광순 교수의 『천군소설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후 지금까지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어 왔다.⁹⁾ 그런데 김우옹의 <천군전>, 임영의 <의승기>, 이옥의 <남령전>의 경우, 과연 이 작품들을 소설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재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소설’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특히 남효온의 <옥부>, 홍성민의 <천군견지수공수성> 등과 같이 소설 장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단편의 작품들을 함께 고찰하는 데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천군소설’이라는 용어는 <수성지>나 <천군기> 등의 작품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는 타당하지만, 그 외의 작품들까지 포괄하여 일컫는 데에는 역시 난점이 있다.

이와 같은 ‘가전’ 및 ‘소설’이라는 용어의 범주적 제한으로 인하여, ‘우언’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

7) 안병설, 「이조(李朝) 심성가전(心性假傳)의 전개(展開)와 그 성격(性格)」(『한국학논총』 1,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8), 99~111면에서 다음 작품들이 ‘심성가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성간(成侃)의 <용부전>(慵夫傳), 남효온의 <수향기>(睡鄉記), 김우옹의 <천군전>, 임제의 <수성지>, 임영의 <의승기>, 정태제의 <천군연의>, 정기화의 <천군본기>, 이옥(李鈺)의 <남령전>(南靈傳).

8) 이동근, 「조선조(朝鮮朝) 심성가전(心性假傳)의 연구(研究)」(『고소설연구』 1, 고소설학회, 1995), 351면에서 다음 작품들이 ‘심성가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성간의 <용부전>, 남효온의 <수향기>, 김우옹의 <천군전>, 임영의 <의승기>, 정태제의 <천군연의>, 정기화의 <천군본기>, 유치구의 <천군실록>.

9) 김광순, 『천군소설연구』(형설출판사, 1980), 9~11면 참조.

언'이라는 용어는 가전이나 소설의 경우와는 다르게, 오히려 매우 함축적(含蓄的)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즉, '우언'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의'(寓意)를 뜻하기도 하고, 서사 기법으로서의 '우유'(寓喻), 즉 '알레고리'를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통의 특성을 지니는 일군의 작품을 지칭하기도 한다.¹⁰⁾ 이렇게 '우언'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심성 의인체 우언',¹¹⁾ '심성우언소설'¹²⁾ 등의 용어로서 사용되기도 한다.¹³⁾

이처럼 장르적으로나 양식적으로 적절하게 용어를 규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천군계(天君系) 작품'이나 '천군류(天君類)와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얼마간 유보적 입장을 보인 사례도 있다.¹⁴⁾

이상의 연구사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필자는 '가전'이나 '소설'이라는 장르를 포괄하는 용어이되, '우언'에 비해 좀 더 명료하게 양식에 한정된 의미의 용어로서 대안적으로 '천군서사'(天君敍事)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천군서사'라는 용어를 쓸 경우, 가전이나 소설은 물론이고, 기(記), 지(誌), 부(賦) 등의 다양한 문체를 표방하며, 성리학적 심성론을 서사화한 작품 전반으로 연구의 시각을 확장하기에 용이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천군서

10) 장효현, 「形成期 古典小說의 전개와 寓言文學」(『한국 고전문학의 시각』,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0), 115~116면 참조.

11) 안세현, 「15세기 후반~17세기 전반 성리학적 사유의 우언적 표현 양상과 그 의미」(『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에서 '심성 의인체 우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심성 의인체 우언'에 속하는 작품의 장르적 다양성에 주목하되, 표면적인 장르적 차이보다 서술 방식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필자의 문제의식과 통하는 점이 있다.

12) 허원기, 「心性圖說의 圖像學的 意味와 心性寓言小說」(『남명학연구』 20, 남명학연구원, 2005).

13) 장효현, 앞의 논문, 115~116면에서 '우언'이라는 용어의 포괄적, 함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학계에서 '비유기탁(比喩寄託)을 담은 단형(短形)의 이야기'로서 우언을 상정하여 그것을 서사문학의 한 하위 장르로 파악하는 입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우언을 파악할 경우, '단형'(短形)이 아닌 장편 형식의 작품을 우언으로 일컫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허원기 교수가 '심성우언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용어 중의 '우언'은 서사기법으로서의 '우유'(寓喻)에 가까우므로, 또다시 우언의 다층적 의미를 재론하지 않을 수 없다.

14) 강혜규, 「천군계 작품의 사적(史的) 고찰」(『정신문화연구』 31, 정신문화연구원, 2008); 신상필, 「天君類 출현의 철학적 기반과 서사문학적 지위」(『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사'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많은 작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본 장의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천군서사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15세기에 창작된 남효온의 <옥부>, 16세기에 창작된 김우옹의 <천군전>, 17세기에 창작된 황중윤의 <천군기>, 그리고 19세기에 창작된 정기화의 <천군본기> 등의 작품은 각기 다른 문제의식과 서사적 특질을 보여주지만, 이 작품들 간의 크고 작은 중요한 '차이'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천군서사'를 하나의 고착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학사에서 통시적으로 전변(轉變)해 온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일이 긴요하다. 그럼으로써 이 일군의 작품들이 펼쳐내는 다채로운 '결'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읽어내고, 그것의 문학사적, 문화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천군서사를 연구하는 필자의 주된 문제의식이다.

한편 선행 용어의 앞부분에 보이는 '심성'(心性)이나 '천군'(天君)이라는 말은 모두 광의(廣義)에서 '마음'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는가가 개념상 큰 차이를 낳지는 않는다.

그렇기는 하지만, '심성'이라는 용어를 택할 경우, 아무래도 마음의 '본성'〔性〕이라는 측면이 좀 더 강조된다고 생각된다. 일찍이 '마음'〔心〕과 '본성'〔性〕의 관계는 선진유학 시대에 『맹자』(孟子) 「진심」(盡心)의 다음 구절에서, “마음을 다하는 자는 본성을 깨닫게 된다. 본성을 깨달으면 하늘〔天〕을 깨닫게 되니,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¹⁵⁾라고 풀이되었다. 그 후 중국 송대(宋代)에 이정(二程)은 '마음'과 '본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리(理)로서 말하면 하늘〔天〕이라고 일컫고, 받은 것으로서 말하면 본성〔性〕이라고 일컫고,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말하면 마음〔心〕이라고 일컫는다.¹⁶⁾

15)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孟子』, 「盡心 上」)

16) “自理而言, 謂之天, 自稟受而言, 謂之性, 自存諸人而言, 謂之心.”(『孟子集注』, 「盡心 上」)

이러한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송대의 성리학자인 주희(朱熹) 또한 “마음과 본성은 모두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다”¹⁷⁾라고 천명하였다.

이로 볼 때, ‘心’자와 ‘性’자가 결합된 ‘심성’(心性)이라는 용어에는, 성리학적 관점에서 ‘하늘’[天], 즉 ‘우주와 자연’의 근본 이치인 ‘리’(理)가 사람의 ‘마음’에 품부(稟賦)된 것으로서의 ‘본성’[性]의 측면, 즉 ‘이상태(理想態)로서의 마음’이 좀 더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감정[情]이라는 ‘현실태(現實態)로서의 마음’은 자칫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수성지>를 보면, 마음의 본성[性]의 측면보다는 감정[情]의 측면, 그 중에서도 칠정(七情)의 하나인 ‘슬픔’[哀]과 관계 깊은 ‘시름’[愁]이라는 문제가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또한 <천군기>를 보면, 역시 칠정(七情)의 하나인 ‘욕’[欲]에 대한 진지한 소설적 탐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그러므로 마음의 ‘본성’의 측면만이 아니라, ‘감정’의 측면까지 일컫는 용어로서 ‘천군’(天君)¹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이라고 여겨진다. 게다가 ‘천군’은 ‘하늘이 내린 임금’이라는 뜻으로서, 실제로 다수의 천군서사 작품에서 마음이 유가적 군주(君主)의 상(像)으로 의인화되어 있다는 중요한 특징을 드러내 주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천군서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처럼 필자는 ‘천군서사’를 통시적으로 전변해 온 유연하고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시대의 사상적, 문화적 흐름과 관련지어 각각의 작품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천군서사는 한국의 유교문화가 배태한 특수한 문학양식인바,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變奏)해 온 천군서사의 실상을 고찰하는 작업이, 한국 유교문화의 다채로운 면모를 파악하는 데에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예비적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천군본기> 글쓰기 방식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7) “心性皆天之所以與我者.”(朱熹, 『答張敬夫問目』)

18) 김수영, 앞의 논문, 제Ⅱ장 제2절, 제Ⅳ장 제1절, 제Ⅴ장 제2절 참조.

19) “心居中虛, 以治五官, 夫是之爲天君.”(『荀子』, 『天論』)

3. <천군본기> 글쓰기 방식의 특징

① 먼저 본고에서 다룰 <천군본기>의 자료에 대해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천군본기>의 정확한 창작시기는 미상이다. 단지 정기화(鄭琦和, 1786~1840)의 생애로 보아,²⁰⁾ 19세기 전반기에 창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정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천군본기>에 대한 선행 작품론에서는 1917년에 백두용(白斗鏞)이 교열하여 한남서림(翰南書林)에서 간행한 활자본(이하 ‘한남서림본’으로 약칭)을 연구의 주 자료로 삼았다.²¹⁾ 그런데 최근의 서지적 고찰에서, 한남서림본이 <천군본기>의 이본 가운데 오탈자가 가장 많아 비교적 좋지 않은 이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활자본 <천군본기>²²⁾가 이본 가운데 선본(善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²³⁾ 이 활자본 <천군본기>는 정기화의 아들인 정현석(鄭顯奭)이 교열하고, 그 손자인 정헌시(鄭憲時)가 편집하여 1885년 가을에 간행한 것이다.²⁴⁾ 이렇게 <천군본기>의 선본이 밝혀진 일은, 실증적 연구의 초석(礎石)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필자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천군본기>의 이본들을 검토한 결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천군본기>는 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활자본 <천군본기>의 저본(底本)으로 추정된다.

20) 정기화의 본관은 초계(草溪)이고, 자(字)는 남중(南仲)이며, 호(號)는 혈오재(歇五齋)이다. 그의 부친은 침지증추를 지낸 정홍진(鄭鴻晉)이고, 조부는 청은군(淸隱君) 정진로(鄭鎭魯)이다. 남인 계열의 학자로 1827년(순조 27) 41세 때 증광 문과에 급제하였다.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文館) 삼사의 관직을 역임하였고,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필선(弼善)을 지냈으며, 이조참판·홍문관제학으로 추증되었다. 김광순, 『정기화의 생애와 문학』, 『한국의인소설연구』, 새문사, 1987), 237면 참조.

21) 김광순, 『天君本紀에 대하여』(『국어국문학』 78, 국어국문학회, 1978); 조현우, 『천군본기 연구』(『국제어문』 37, 국제어문학회, 2006).

22) <천군본기>의 활자본은 1885년에 100부 간행되었다. 한편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寓言寓話小說』(장효현 외 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407면에서 ‘국도관 가본’으로 명명한 활자본(청구기호: BC 高朝 17-51)과 동일한 또 한 권의 활자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책의 청구기호는 ‘BC 高朝 17-175’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3)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寓言寓話小說』(장효현 외 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중 ‘心史’(천군본기)에 대한 교감 해제 부분인 407~410면 참조.

24) “不肖男顯奭校, 孫憲時編, 乙酉秋刊”이라는 활자본의 간행 기록을 통해 이 사실이 확인된다.

필자의 추정은 선행연구의 추정과는 반대가 된다.²⁵⁾

국립중앙도서관에는 ‘BC 高朝 17-175’의 청구기호가 붙은 <천군본기>가 두 책 있다. 한 책은 필사본이고, 다른 한 책은 활자본이다. 두 책 모두 ‘心史’라는 표제를 갖고 있지만, 별도의 두 책이므로 본래 각각 다른 청구기호가 부여되어야 옳았다. 이와 관련하여 두 책 모두에 “昭和 16. 10. 25 古20799”²⁶⁾라는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도장이 공통적으로 찍혀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 두 책은 원래 정기화의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²⁷⁾ 뒤에 어떤 경로로 조선총독부도서관에 수집되어 1941년 10월 25일에 같은 청구기호를 부여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²⁸⁾

필자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천군본기>를 활자본 <천군본기>의 저본(底本)으로 추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 이 필사본 <천군본기>의 앞표지 안쪽에 “歿五弼善公遺稿”라는 기록 및 “手澤斯存, 敬而覽之”²⁹⁾라는 기록이 있다는 점.
- (2) 이 필사본 <천군본기>가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된 비점(批點), 관주(貫珠), 줄 등이 많이 쳐진 교열본(校閱本)이라는 점.
- (3) 이 필사본의 뒷표지 안쪽에 “憲時在外衙門參議, 刊出一百本. 乙酉九月日, 余³⁰⁾在德源任所”라는 기록이 있다는 점.
- (4) 이 필사본과 함께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활자본³¹⁾의 뒷면에 별지(別紙)에 적혀 첨부된 ‘心史派傳記’³²⁾라는 기록이 보이며, 거기에 이 책을 나누어 준 사람으로 추정되는 60여명의 19세기 말의 인물들 이름이 밝혀져 있고, 이

25)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寓言寓話小說』, 410면.

26) ‘昭和 16년’은 1941년에 해당한다.

27)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8) 요컨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천군본기>는 총 3종이다: ①필사본 <천군본기>(청구기호: BC 高朝 17-175) ②활자본 <천군본기>(청구기호: BC 高朝 17-175) ③활자본 <천군본기>(청구기호: BC 高朝 17-51) 그런데 ①과 ②에는 같은 청구기호가 붙어 있으므로, 이하에서 ①은 ‘청구기호 BC 高朝 17-175의 제1책’으로, ②는 ‘청구기호 BC 高朝 17-175의 제2책’으로 구별하여 부르고자 한다.

29) ‘수택이 여기 있으니, 공경하여 보라’라는 뜻임.

30) ‘余’는 정기화의 아들 정현석이다.

31) 즉, 청구기호 BC 高朝 17-175의 제2책.

32) 『心史』를 나누어준 기록이라는 뜻임.

책을 발송한 지명으로 추정되는 지역 이름이 밝혀져 있다는 점.³³⁾

이상의 네 가지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이 필사본은 1885년에 간행된 활자본 <천군본기>의 저본(底本)이라는 사실이 분명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후손이 선조의 문집 등을 간행할 때에는 원작을 다시 옮겨 쓴 뒤 교열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 필사본이 바로 그 교열본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래서 (2)에서 언급했듯이, 이 필사본에 비점과 관주 등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교열의 흔적은 활자본에 있는 “不肖男顯奭校, 孫憲時編, 乙酉秋刊”이라는 기록에 의거할 때, 정기화의 아들인 정현석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필사본은 정기화가 쓴 원본은 아니다. 따라서 (1)에서 말한 “手澤”은 정기화의 수택이 아니라 정현석의 수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이하게도 “手澤斯存, 敬而覽之” 여덟 글자는 다른 종이에 써서 덧대어 놓았다. “歆五弼善公遺稿”와는 필체도 다르다. 정현석의 아들인 정현시가, 정현석이 교열을 마무리한 뒤의 어떤 시점에, 이것을 써 붙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 필사본의 2면³⁴⁾에 그려 놓은 “八溪後人”,³⁵⁾ “歆五齋”, “鄭氏琦和”라는 인장 및 74면에 그려 놓은 “南仲”,³⁶⁾ “鄭氏琦和”, “侍講院弼善”³⁷⁾이라는 인장이 활자본에 그대로 새겨져 간행된 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로 볼 때, 정현석이 그의 아들 정현시와 함께, 선친(先親)의 인장(印章)이 찍힌 원본(原本)을 보고,³⁸⁾ 그것을 정사(正寫)하고 교열한 뒤, 이를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33) 이 활자본(청구기호: BC 高朝 17-175의 제2책)은 앞표지의 ‘心史’라는 표제 밑에 ‘仁壽堂藏’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仁壽堂’이 누구의 당호(堂號)인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정기화의 아들인 정현석이나 그 손자인 정현시의 당호가 아닐까 추정된다. 한편, ‘心史派傳記’는 정기화의 손자인 정현시가 활자본을 배부한 다음, 가장(家藏)의 활자본에 첨부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34) 해당 ‘면’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에 부여한 것을 따른다.

35) ‘八溪’는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草溪)의 옛 지명. ‘초계’는 정기화의 본관이다.

36) ‘南仲’은 정기화의 자(字).

37) 앞의 인물 소개에서 언급하였듯이, 정기화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필선(弼善)을 지냈다.

38) 특히 “侍講院弼善”이라는 인장은 직인(職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래 원본에 찍혀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요컨대 이상의 고찰을 통해 <천군본기>의 자료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첫째, 1885년에 간행된 활자본 <천군본기>는 ‘원본(原本)의 활자화’에 해당한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 <천군본기>³⁹⁾는 1885년에 간행된 활자본 <천군본기>의 저본(底本)에 해당한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활자본 <천군본기>(청구기호 BC 高朝 17-175의 제2책)는 ‘후손가(後孫家) 구장(舊藏) 활자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1885년에 간행된 활자본 <천군본기>를 연구의 기본 자료로 삼고, 필요한 경우 후손가(後孫家) 구장(舊藏) 필사본 <천군본기>를 참고하고자 한다.

② <천군본기>에는 쌍행(雙行)의 세주(細注)로 된 130여 개의 협주(夾注)가 달려 있다.⁴⁰⁾ 이와 같이 주(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글쓰기 방식은 전대의 천군서사에서 볼 수 없던 것으로서, <천군본기>만의 주목되는 특징이다. 다음에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 협주의 활용 양상을 고찰해 보자.

천군은 격현(膈縣) 사람으로, ㉠성(姓)은 주씨(周氏)이고, 휘(諱)는 태연(泰然)이며, ㉡자(字)는 정선(正先)이다. ㉢그 선조는 충막군(沖漠君)으로 무극(無極)

39) 이 필사본 <천군본기>를 ‘후손가(後孫家) 구장(舊藏) 필사본’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40) 후손가(後孫家) 구장(舊藏) 필사본 <천군본기> 및 1885년에 간행된 활자본 <천군본기>에는 괄선의 밖, 즉 상단의 난외(欄外)에 작품에 관한 십여 개 이상의 짙막한 기록이 있다.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寓言寓話小說』, 409~410면에서 이것을 작가의 ‘주(注)로 간주하여 ‘두주’(頭註)로 일컬었다. 그러나 후손가(後孫家) 구장(舊藏) 필사본 48면의 상단 난외에 있는 다음 기록, “甚矣! 先生之留意於心學而尙未絕富貴之念也!”에서 “先生” 운운한 표현으로 보아, 상단 난외의 이 기록이 작가 자신의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이 상단 난외의 기록은 모두 같은 필체로 씌어졌는데, 조금 전에 본 48면의 기록과 같이, 일부 기록에서 뚜렷한 비평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필자는 이 상단 난외의 기록을 ‘미비’(眉批)로 일컫고자 한다. 한편 후손가(後孫家) 구장(舊藏) 필사본에 보이는 10면의 미비(2개), 48면의 미비, 51면의 미비는 1885년에 간행된 활자본에는 빠져 있다.

의 고을에서 나서 천황씨(天皇氏)를 섬겨 대리경(大理卿)이 되었다.⁴¹⁾

인용문은 <천군본기>의 도입부로서, 명원(明元) 황제로 즉위하게 된 천군의 성명(姓名)과 자호(字號)가 소개되고, 그의 가계(家系)에 대한 서술이 시작되는 대목이다. 짧은 대목이지만 협주가 세 개나 달려 있다.

먼저 ‘㉠성(姓)은 주씨(周氏)이고’라는 구절의 “周”자 뒤에, “心要周通”이라는 주가 달려 있다. 풀이하면 ‘마음은 두루 통함을 요한다’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자(字)는 정선(正先)이다’라는 구절의 “先”자 뒤에, “先正其心”이라는 주가 달려 있다. 풀이하면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라는 뜻이다. 이 주는 천군의 자(字)가 『대학』(大學)에 근거한 명명(命名)임을 밝힌 것이다.⁴²⁾

그 다음으로 ‘㉢그 선조는 충막군(沖漠君)으로~대리경(大理卿)이 되었다’라는 구절의 “卿”자 뒤에, “人之未生, 渾然一理, 沖漠無朕”이라는 주가 달려 있다. 풀이하면 ‘사람이 나기 전에는 혼연한 하나의 리(理)이니 텅 비고 고요하여 아무런 형체가 없다’라는 뜻이다. 이 협주 중의 “沖漠無朕”이라는 구절은 중국 송대(宋代)의 성리서(性理書)인 『이정유서』(二程遺書)에 보인다.⁴³⁾

이 세 개의 협주 중 ㉠과 ㉡은 천군의 성(姓)과 자(字)에 대하여, ㉢은 천군의 선조로 소개된 ‘충막군’의 칭호에 대하여, 각각의 명명의 근거를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천군본기>의 협주는 일차적으로 등장인물의 명명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활용되었다.

다른 예를 좀 더 보자.

처음으로 좌우(左右) 승상(丞相)을 세웠다. ㉣순우선(淳于善)을 좌승상으로 삼고, ㉤전지절(田知節)을 우승상으로 삼았다.⁴⁴⁾

41) “天君膺縣人, 姓周氏, 諱泰然, 字正先. 其先曰沖漠君生于無極之鄉, 事天皇氏爲大理卿.”

42) 『대학』(大學)의 다음 구절이 참조된다: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

43) 『이정유서』(二程遺書) 권15의 다음 구절이 참조된다: “沖漠無朕, 萬象森然已具, 未應不是先, 已應不是後.”

인용문은 천군이 재위한 지 4년째인, 중화(中和) 4년조의 첫 부분이다. 천군을 보필하는 ‘순우선’(淳于善)과 ‘전지절’(田知節)이라는 두 재상이 소개되는데, 두 인물의 이름을 그렇게 명명(命名)한 근거가 협주에 밝혀져 있다.

먼저 ‘㉠순우선(淳于善)’이라는 구절의 “善”자 뒤에, “人性純善”이라는 주가 달려 있다. 풀이하면 ‘사람의 성(性)은 순선(純善)하다’라는 뜻이다. ‘순선’(純善)은 ‘지극히 선(善)하다’는 뜻이므로, ‘순우선’이라는 이름이 본성[性]을 의인화한 명명이라는 사실을 주에서 밝힌 것이다.

다음으로 ‘㉡전지절(田知節)’이라는 구절의 “節”자 뒤에, “人情以爲田, 發皆中節謂之和”라는 주가 달려 있다. 풀이하면 ‘사람의 정(情)을 받으로 여겨, 발(發)함이 모두 중절(中節)하면 화(和)라고 일컫는다’라는 뜻이다. 이 주는 『중용』(中庸)의 다음 구절,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以皆中節謂之和”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전지절’이라는 이름 또한 감정[情]을 의인화한 명명이라는 사실을 주에서 밝혔다.

또한 9년조에 처음 등장하는 ‘수보’(收父)라는 인물은, ‘일탈한 마음을 거둔다’는 뜻으로서 『서경』(書經)에 보이는 ‘收放心’의 의인화라는 사실이 주에 밝혀져 있다.⁴⁵⁾ 그리고 10년조에 등장하는 ‘이’(彝), ‘편’(褊), ‘기’(伎)라는 인물들을 차례로 ‘순강후’(順疆侯), ‘위후’(魏侯), ‘위후’(衛侯)로 일컫은 까닭과, 이 인물들의 명명이 『시경』(詩經)에 근거하였다는 사실 또한 주에 밝혀져 있다.⁴⁶⁾

이 외에도 18년조에 등장하는 ‘독고양(獨孤良)’, 22년조에 등장하는 ‘지수’(志帥), 30년조에 등장하는 ‘탁립’(卓立) 등의 인물에 대해, 각 인물의 명명이 어디에 근거하였는가가 협주에 밝혀져 있다.

그런데 협주에서 밝힌 등장인물들의 명명이 대체로 사서삼경(四書三經)

44) “始立左右相. 以淳于善爲左丞相, 田知節爲右丞相.”

45) 9년조에서 “收父”라는 구절의 “父”자 뒤에, “收放心”이라는 주가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경』(書經) 「필명」(畢命)의 다음 구절이 참조된다: “雖收放心, 閑之惟艱”

46) 10년조에서 “彝爲順疆侯”라는 구절의 “侯”자 뒤에 “是曰秉彝有順無疆”이라는 주가 달려 있다. 또 “宗室褊爲魏侯”라는 구절의 “侯”자 뒤에, “魏詩, 惟是褊心, 是以爲刺”라는 주가 달려 있다. 이 주는 『시경』(詩經) 위풍(魏風) 「갈구(葛屨)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好人提提, 宛然左辟, 佩其象揅, 維是褊心, 是以爲刺.” 또한 “伎爲衛侯”라는 구절의 “侯”자 뒤에, “衛詩, 不伎不求”라는 주가 달려 있다. 이 주는 『시경』(詩經) 패풍(邶風) 「웅치(雄雉)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百爾君子, 不知德行, 不伎不求, 何用不臧”

을 위시한 유교 경전 및 성리서(性理書)와 같은 ‘경학적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실을 작가가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처럼 의인화(擬人化)의 전거(典據)를 밝히는 것 외에, 의공간화(擬空間化)의 전거를 밝히거나, 세부 서사 표현의 전거를 밝히고, 다소 혼동될 만한 구절의 의미를 지정(指定)하는 데에도 협주가 활용되었다.

먼저 협주에서 의공간화(擬空間化)의 전거가 밝혀져 있는 경우를 보자.

사두(四蠹)를 ㉠절역(絶域)에 귀양 보내고, 오구(五寇)를 ㉡금원(禁苑)에서 죽이고, 이호(二豪)를 ㉢운몽(雲夢)으로 추방하고, 칠탕(七蕩)을 ㉣중산(中山)에 유배 보내, 네 무리를 벌하니 나라 안이 모두 복종하였다.⁴⁷⁾

인용문은 20년조의 첫 부분이다. 태평하던 천군의 나라에 혼란을 일으켜 해악을 끼친 네 무리가 그 지은 죄에 따라 어떤 벌을 받았는가가 서술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절역(絶域)’의 “域”자 뒤에 “子絶四”라는 주가 달려 있다. ‘사두’(四蠹)는 의(意), 필(必), 고(固), 아(我)를 의인화한 것으로,⁴⁸⁾ 『논어』(論語) 「자한」(子罕)의 다음 구절 “子絶四, 母意, 母必, 母固, 母我”에 근거한 명명이다. 그래서 이 네 인물이 쫓겨난 곳의 이름을 ‘절역’(絶域)이라고 한 것임을 주에 밝혀 놓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원(禁苑)’의 “苑”자 뒤에 “禁其太甚者”라는 주를 달고,⁴⁹⁾ ‘㉢운몽(雲夢)’의 “夢”자 뒤에 “富貴如浮雲, 如一場春夢”이라는 주를 달고,⁵⁰⁾ ‘㉣중산(中山)’의 “山”자 뒤에 “情要適中”이라는 주를 달아,⁵¹⁾

47) “流四蠹于絶域, 殛五寇于禁苑, 放二豪于雲夢, 竄七蕩于中山, 四罪國內咸服.”

48) 12년조에 ‘사두’(四蠹)를 비롯하여, ‘오구’(五寇), ‘이호’(二豪), ‘칠탕’(七蕩)이 각각 무엇의 의인화인지가 밝혀져 있다.

49) ‘금원’(禁苑)은 ‘오구’(五寇)가 죽임 당한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오구’는 ‘위복’(衛濮), ‘조야’(趙冶), ‘감추’(甘芻), ‘온적’(溫適), ‘포현’(浦賢)이라는 다섯 인물을 지칭한다. 이 다섯 인물은 차례로 ‘성’(聲), ‘색’(色), ‘포’(飽), ‘난’(煖), ‘박’(博)을 의인화한 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대체로 인간의 생리(生理)에 필수적인 것들이지만, 과도하게 탐닉할 경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이 때문에 ‘매우 심한 것을 금한다’(禁其太甚者)는 의미를 담아 오구가 죽임 당한 곳의 이름에 ‘禁’자를 쓴 것으로 여겨진다.

각각의 공간에 그런 이름을 붙인 까닭 내지 근거를 밝혀 놓았다.

또한 세부 서사 표현의 전거를 밝히는 데에도 협주가 활용되었다.

천군이 이것(사냥-인용자)을 즐겨, ㉠이로부터 하루에 한번 돌아오기도 하고, 한 달에 한번 돌아오기도 하고, 백일 동안 돌아오지 않기도 했다.⁵²⁾

인용문은 13년조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다. 천군이 사두(四蠹), 오구(五寇), 이호(二豪), 칠탕(七蕩)의 무리와 어울리며 정사(政事)에 힘쓰지 않고 사냥에만 빠져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이로부터 하루에~않기도 했다’라는 구절의 “返”자 뒤에 “其餘日月至焉”이라는 주가 달려 있다. 이 주는 『논어』 「옹야」(雍也)의 다음 구절 “子曰: 回也其心三月不違仁, 其餘則日月至焉而已矣”에서 취한 것이다. 본래 이 말은 공자가 수제자인 안회(顔回)의 마음가짐을 높이 평가하여 한 말이다. 즉, 안회는 그 마음이 석 달 동안 인(仁)을 떠나지 않건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日]나 한달[月]에 겨우 한번 인(仁)에 이른다든 의미이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논어』의 이 구절을 환골탈태하여 사냥에 탐닉하는 천군의 행태를 그리는 데 쓰고, 그 전거를 협주에 밝혀 놓았다.

뿐만 아니라 다소 혼동될 만한 구절의 의미를 지정(指定)하는 데에도 협주가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3년조에서, 어떤 부분이 오관(五官)에 임명된 ‘모’(貌), ‘언’(言), ‘시’(視), ‘청’(聽), ‘사’(思)라는 인물에 해당되는 서술인가를 각각 한 글자의 협주로서 지정하였다.⁵³⁾ 이와 같은 협주의 활용 양상은

50) ‘운몽’(雲夢)은 ‘이호’(二豪)가 추방된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호’는 ‘희요’(希饒)와 ‘희달’(希達)이라는 두 인물을 지칭한다. 이 두 인물은 각각 ‘부요(富饒)를 바라는 마음’과 ‘영달(榮達)을 바라는 마음’을 의인화한 것인데, 이러한 마음이 뜬 구름이나 일장춘몽과 같다고 보아 이호가 추방된 곳을 ‘운몽’(雲夢)이라고 명명하였음을 주에서 밝혔다.

51) ‘중산’(中山)은 ‘칠탕’(七蕩)이 유배된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칠탕’은 ‘수흔’(隨欣), ‘안행’(顏悻), ‘낙극’(樂極), ‘복위’(伏威), ‘종담’(鐘耽), ‘구침’(仇瞻), ‘아종’(阿縱)을 지칭한다. 이 일곱 인물은 차례로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欲)을 과도하게 표출한 마음을 의인화한 것이다. <천군본기>의 작가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 전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것이 ‘중화’(中和)에 이르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유배된 곳의 이름에 ‘中’자를 쓴 것임을 ‘정(情)은 적중(適中)함을 요한다’(情要適中)라는 주에서 밝혔다.

52) “君樂之, 自是或日一返焉, 或月一返焉, 或十旬不返.”

12년조, 14년조 등에도 보인다.

이처럼 <천군본기>의 협주는 의인화 및 의공간화의 전거를 밝히고, 세부 서사 표현의 전거를 밝히며, 다소 혼동될 만한 구절의 의미를 지정하는 등 작품 전반에서 다양한 활용 양상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경학적 지식’을 드러내는 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렇게 주를 활용하여 ‘경학적 지식’을 드러내는 데 큰 비중을 둔 <천군본기>의 글쓰기 방식은 전대의 천군서사와 차별되는 이 작품만의 특징이다. 이 점, <천군본기>의 창작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를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③ 한편 <천군본기>는 허구적 서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역사서의 체재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역사적(擬歷史的) 글쓰기 방식 또한 전대의 천군서사에서 볼 수 없던 것이다.⁵⁴⁾

이와 관련하여 작가가 <천군본기>의 앞에 둔 「총론」(總論)이라는 글이 주목된다.⁵⁵⁾ 이 글은 <천군본기>에 대한 일종의 해설 내지 자평(自評)에 해당한다. 그 후반부에 다음과 같이 <천군본기>의 구성원리가 밝혀져 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땐 마음은 다만 하나의 천리(天理)일 뿐이나, 아이가 됨에 미쳐 점점 지각(知覺)이 생겨서 오관이 먼저 작용하게 되고, 4·5세가 되면 성(性)과 정(情)이 나타나며, 사단(四端)이 발동해 선(善)은 있으며 악(惡)

53) 3년조에서 “予違汝弼, 汝無面從. 令色足恭, 惟聖耻之”라는 구절의 “之”자 뒤에 “貌”라는 한 글자의 주를 달아, 이 구절이 ‘모’(貌)라는 등장인물에 대한 서술임을 지정하였다. 또 “惟口出好興戎, 發禁躁妄, 千里應善”이라는 구절의 “善”자 뒤에 “言”이라는 한 글자의 주를 달아 이 구절이 ‘언’(言)이라는 등장인물에 대한 서술임을 지정하였다. 나머지 ‘시’(視), ‘청’(聽), ‘사’(思)라는 등장인물에 대한 서술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으로 주가 활용되었다.

54) 전대의 천군서사인 <천군전>(天君傳), <천군기>(天君紀), <천군연의>(天君衍義) 등에서 활용된 ‘전’(傳), ‘기’(紀), ‘연의’(衍義) 또한 그 문체상 기본적으로 ‘역사적 글쓰기’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렇지만 <천군본기>의 경우처럼 외형상 ‘역사서’와 다를 바 없는 체재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이 점에서 <천군본기>의 의역사적 글쓰기 방식은 독특하다.

55) 활자본 <천군본기>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心史」라는 표제(1면)-「天君本紀序」(2~3면)-「總論」(4~8면)-<천군본기>(10면~72면)-정기화의 발문(跋, 74~75면)-정현석의 발문(跋, 76~78면). 9면과 73면은 간지(簡紙)이다.

은 없는 까닭에 이상(二相)과 사사(四司)로써 그 다음에 붙였고, 6·7세가 되면 지규(智竅)가 차차 열려 지수(止水)의 평평함과 같아서, 물꼬를 터놓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 까닭에 칠규(七竅)와 방당(方塘)으로써 그 다음에 붙였고 (...) 이후로는 다시 힘쓸 곳이 없는 까닭에 드디어 삼십입(三十立)한 뒤에 절필(絶筆)하였으니, 보는 사람은 자세히 살피기 바란다.⁵⁶⁾

이처럼 <천군본기>는 장차 사대부 남성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태어나서 30세가 될 때까지 겪게 되는 성장 과정을, 특히 ‘심성의 수양 과정’을 중심으로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술한 작품이다. 재미있는 점은, ‘인물’(의인화된 심성론의 개념)이나 ‘사건’(심성론의 개념을 습득하고 익히는 과정에서의 인간의 갈등 및 그 해결)의 등장 순서가, 실제로 그 나이에 있을 법한 인간의 구체적 성장 과정과 그럴듯하게 대응되어 짜여 있는 점이다. 물론, 작가의 말대로 실제로 인간에게 있어 “성(性)과 정(情)이 나타나며, 사단(四端)이 발동”하는 나이가 4·5세 무렵인가 하는 등의 내용은 진위를 따지기 힘든 주장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총론』의 위 대목을 통해, 작가가 당대의 사대부 남성에게 필요한 심성 수양의 단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그러한 심성 수양의 단계를 천군이라는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의 ‘역사’인 것처럼 서술하였다는 점에 이 작품의 창안(創案)이 있다.

이와 같은 <천군본기>의 의역사적 글쓰기 방식은, 동아시아 역사서의 양대 효시(嚆矢)로 평가되는 『사기』(史記) 및 『춘추』(春秋)의 체재와 관계가 깊다.

먼저 <천군본기>는 ‘본기’(本紀)라는 제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사기』에서 유래한 ‘기전체’(紀傳體)와 관계가 있다. 특히 『사기』 본기(本紀)에서 제왕(帝王)의 사적을 기술한 방식을, 작가가 적극적으로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군본기>의 매 연조마다 “史氏曰”로 시작되는 논평을 두

56) “人之始生，心只是一箇天理而已，及夫孩提之時，知覺漸生，而五官先爲之用，四五歲則性情形焉，四端感焉，而有善無惡，故次之以二相四司。六七歲則智竅漸開，而猶如止水之平，不決則不流，故此之以七竅方塘（…）自此以後則更無着力處，故遂絕筆於三十立之後，覽者詳之。”

고, 작품의 끝부분인 30년조의 마지막에 “太史公曰”로 시작되는 총평(總評)을 둔 점도 『사기』의 체재를 차용한 것이다.

다음으로 천군의 즉위로부터 재위 30년까지의 역사를 연조별로 빠짐없이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군본기>의 구성원리는 『춘추』에서 유래한 ‘편년체’(編年體)와 관계가 있다. 그런데 좀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도 <천군본기>는 『춘추』와 관계가 깊다.

‘춘추필법’(春秋筆法)이라는 말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 노(魯)나라의 역사서인 『춘추』의 경문(經文)은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글자 하나하나에 포폄호오(褒貶好惡)의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고도로 함축적인 역사서로 알려져 왔다. 그러므로 『춘추』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가와 독자 사이에 비슷한 수준의 지식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이상적인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로부터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과 같은 주석서가 나왔다. 이 중 고증(考證)이 가장 자세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석서가 『춘추좌씨전』이다.

<천군본기>의 의역사적 글쓰기 방식은, 이 『춘추좌씨전』의 글쓰기 방식과 관련이 깊다.⁵⁷⁾ 그 관련 양상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가) 말[馬]이 단연(丹淵)의 물속에서 태어나 이름을 ‘의마’(意馬)라고 하였는데, 멀리까지 달리도록 사육하니 잠깐 사이에 천리(千里)를 내달렸다. 천군이 그 말을 얻어 사방을 주유(周遊)하려 하자, 수보(收父)가 이렇게 간언(諫言)하였다.

“주상께서는 오로지 위태롭기만 한 사람들에게 임하시어 오로지 은미(隱微)하기만 한 도(道)를 행하셔야 하시거늘⁵⁸⁾ 어찌하여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겨내

57) 조현우, 앞의 논문에서 ‘춘추필법’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천군본기>에 보이는 ‘자격 있는 독자’의 문제 및 서사 구성의 특징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58) 오로지 위태롭기만~행하셔야 하시거늘: 원문은 “君臨惟危之人, 行惟微之道”이다. 이 표현은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의 다음 구절, “人心惟危, 道心惟微”를 환골탈태한 것이다. 『서경』의 원 뜻은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을 비교하는 데 있으나, 작가 정기화는 ‘총론’(總論)에서 밝혔듯이 <천군본기> 작중에서 한 글자의 ‘心’자도 쓰지 않으면서 마음에 대한 장편의 서사를 완성하고자 하였던바, 이러한 표현을 구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를 사나운 말을 길들이듯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욕심을 막기를 썩은 줄로 제어하듯 하시어, 기필코 횡행(橫行)하고 경취(競驟)하여 구곡(九曲)의 험한 길로 내려가고자 하셔서, 백성들⁵⁹⁾로 하여금 귀신이 되게 하고 물여우가 되게 하고,⁶⁰⁾ 평탄한 길이 잡초로 뒤덮이게 하려 하십니까? (...) 원컨대 주상께서는 스스로 경계하시고 돌이켜 깨달으소서.”

천군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생각이 무강(無疆)하니 / 생각하며 말이 이에 선(善)하다’⁶¹⁾라고 했으니, 나의 생각이 이미 무강(無疆)하고, 나의 말이 또한 선(善)하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좋은 말이 달려가는 것이니, 간정(艱貞)하다’⁶²⁾라고 했으니, 진실로 간정(艱貞)의 경계를 잊지 않을 수 있고, 치구(馳驅)의 규범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면, 오로지 위태롭기만 한 사람들이 절로 편안할 수 있고, 오로지 은미(隱微)하기만 한 도(道)가 절로 드러날 수 있건만, 대체 어찌하여 근심하는가?”라고 하고는 듣지 않았다.⁶³⁾

(나) 사씨(史氏)는 말한다. 한무제(漢武帝) 때 악와(渥洼)의 물속에서 말(馬)이 태어났는데 천자(天子)가 이를 상서롭게 여겨 <신마가>(神馬歌)를 지어 종묘(宗廟)에서 그 노래를 쓰자 급암(汲黯)이 간언(諫言)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저 신마(神馬)는 하도(河圖)를 짚어낸 흑마(黑馬)가 아니고, 악와(渥洼)는 흑마

59) 백성들: 원문은 “元元之人”이다. 『전국책』(戰國策) 「진국」(秦國) 권1에 다음 구절이 보인다: “制海內, 子元元, 臣諸侯, 非兵不可.” 『전국책』의 이 구절 중의 ‘元元’에 대하여, 고수(高秀)는 『후한서』(後漢書) 「광무제기」(光武帝紀) 상(上)에서 “‘원’(元)은 ‘선(善)하다’는 뜻인데 백성들이 선하므로 ‘원’(元)이라고 칭하였다”(元, 善也, 民之類善, 故稱元)라고 풀이하었다.

60) 백성들로 하여금~되게 하고: 백성을 도탄(塗炭)에 빠뜨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게 한다는 뜻이다.

61) 생각이 무강(無疆)하니~이에 선(善)하다: 『시경』(詩經) 노송(魯頌) 「동」(駟)에 이 구절이 보인다: “駟駟牡馬, 在坰之野. 薄言駟者, 有騶有皇. 有驪有黃, 以車彭彭. 思無疆, 思馬斯臧.” 여기서 “臧”은 ‘선(善)하다’는 뜻이다.

62) 좋은 말이~간정(艱貞)하다: 원문은 “良馬逐艱貞”이다. 『주역』(周易) ‘대축’ (大畜)괘 구삼(九三) 효사(爻辭)의 앞부분에서 ‘利’자가 빠진 표현이다: “良馬逐, 利艱貞, 日閑輿衛, 利有攸往.”

63) “馬生丹淵水中, 名曰意馬, 養鷺高遠, 造次之間, 馳逐千里. 君得之, 將周流四方, 收父諫曰: ‘君臨惟危之人, 行惟微之道, 何不克己之私, 如制悍馬, 防己之欲, 如御朽索, 而必欲橫逸競驟, 下九曲之羊腸, 使元元之人, 爲鬼爲蜮, 坦坦之道, 鞠爲茂草也哉? (...) 願君懲創而回悟焉.’ 君曰: ‘不然. 『詩』曰: <思無疆, 思馬斯臧>, 吾之思, 旣無疆矣, 吾之馬, 又斯臧矣. 『易』曰: <良馬逐艱貞>, 苟能不忘艱貞之戒, 而不失馳驅之範, 則惟危之人, 可以自安, 惟微之道, 可以自著, 夫何患焉?’ 不聽.”

를 낳은 황하(黃河)가 아니거늘, 말이 홀연 태어났으니 불상(不祥)하다고 이름이 마땅하리라! 그 후 마침내 군사를 모조리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말을 거두었으니, 그 조짐이 먼저 나타난 것이 이와 같았다. 지금 이 단연(丹淵)의 말이 또하나의 악와(渥洼)에서 태어난 말이니, 천군이 의미(意馬)를 좋아한 것을 한무제가 신마(神馬)를 노래한 것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수보(收父)가 간언(諫言)한 것을 급암(汲黯)이 쟁론(爭論)한 것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64)

인용문은 태평하던 천군의 나라에 ‘혼란’이 시작되는 첫 해인 9년조이다. <천군본기>의 매 연조는 전체적으로 (가)와 같은 ‘본문’ 및 (나)와 같은 사씨(史氏)의 ‘논평’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매 연조마다 중심 사건이 하나씩 서술되는데, 9년조의 중심 사건은 ‘말’[馬]에 관한 것이다. 천군이 방탕한 생활로 접어드는 계기가 말을 타고 다니며 자유분방하게 노니는 데에서 시작되었으며, 천군이 충신인 수보(收父)의 직간을 듣지 않음으로써, 후에 더 큰 화(禍)가 초래될 것임이 암시되어 있다.

이처럼 9년조에서는 우선 ‘마음이 일탈하는 것’이 사건의 중심적 모티프가 된다. 그것과 짝이 되는 심성론의 개념으로는 ‘수보’(收父)로 의인화된 ‘수방심’(收放心), 즉 ‘일탈한 마음을 거두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일탈한 마음’의 비유로서 ‘말’[馬]이 선택된 점이다. 하필 말을 비유로 선택한 이유는, 사씨의 논평에 나오듯 옛날 중국에서 악와(渥洼)의 물에서 말이 나왔을 때, 한무제(漢武帝)가 충신 급암(汲黯)의 직간을 듣지 않음으로써 결국 큰 화(禍)를 당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고사(故事)를 거론하기 위해서이다.65)

이 점에서 <천군본기>의 의역사적 글쓰기 방식은 『춘추좌씨전』의 글쓰

64) “史氏曰: 漢武帝時, 馬生渥洼水中, 天子以爲瑞, 作「神馬歌」, 用之宗廟, 汲黯諫, 不聽. 夫神馬非負圖之驪, 渥洼非出馬之河, 而馬忽生之, 謂之不祥也, 亦宜矣! 其後, 竟興窮黷, 從民貫馬, 其兆朕之先見, 有如此矣. 今此丹淵之馬, 亦一渥洼之生, 而天君之好之, 何如漢武之歌之也? 收父之諫之, 何如汲黯之爭之也?(...)”

65) 안정되지 않고 들뜬 마음을 원숭이나 말이 날뛰는 것에 비유한 ‘心猿意馬’라는 말 또한 9년조의 발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9년조의 이 부분에서는 무엇보다 ‘신마’(神馬)와 관련된 한무제(漢武帝)의 고사를 말하기 위해 ‘일탈한 마음’의 비유로서 ‘말’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 방식을 서사적으로 변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춘추좌씨전』에서는 ‘경문’(經文)을 먼저 기술하고, 그 경문의 의미를 풀이하고자 ‘주석’(이른바 ‘傳’)에 해당되는 부분) 내지 ‘논평’(대개 ‘君子曰’로 시작되는 부분)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를 차례대로 정리해서 보이면 아래와 같다.

① 심성 수양과 관련된 개념의 선택.



② 선택된 개념과 관련된 ‘역사적 고사’의 선택.



③ 선택된 개념을 ‘역사적 고사’와 유사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기사화함.

여기서 ①, ③은 <천군본기> 때 연조의 ‘본문’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②는 예외 없이 본문의 뒤에 붙는 사씨(史氏)의 ‘논평’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경우 작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문만을 읽어서도 안 되고, 사신의 논평만을 읽어서도 안 된다. 본문과 논평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총론」의 다음 대목에 <천군본기>의 이러한 체재에 대한 작가의 해명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역사서의 체재를 취했으므로, 곤월(袞鉞)이 없을 수 없는 까닭에 연조마다 그 아래에 사단(史斷)으로써 이었고, 또 사단을 내린 다음에야 심학(心學)을 거듭 논할 필요가 없는 까닭에 오로지 제왕가(帝王家)의 치란성쇠(治亂盛衰)의 근원으로써 반복하여 논(論)을 세워 그 가운데에 대략 심학(心學)의 본 뜻을 붙였으니, 이 또한 문장가(文章家)의 기복(起伏)하는 법이다.⁶⁶⁾

인용문 중의 ‘사단’(史斷)이, 필자가 말한 ‘논평’에 해당된다. 위의 인용문

66) “既爲史體，則不可無袞鉞，故每年下，係之以史斷，而既爲史斷，則亦不必疊論心學，故專以帝王家治亂盛衰之源，反覆立論，而其中略寓心學之本意，此亦文章家起伏法也。”

에서 밝혔듯이 작가 정기화는, 잘 알려진 역사적 고사와 병렬함으로써 심성론의 논의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문장가(文章家)로서의 남다른 자부를 담아내고자 이와 같은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천군본기>는 역사서의 체재를 취함으로써, 특히 사씨의 논평 부분에서 다채로운 ‘역사적 지식’을 펼쳐 보이기에 용이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천군본기>의 의역사적 글쓰기 방식 또한 ‘지식’[知]을 중시하는 작가의 창작 지향과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4. 19세기 한국의 유교문화와 <천군본기> - 결론을 곁하여

작가 정기화는 <천군본기>에 대한 한 편의 발문을 남겼다. 발문의 어조는 다음에서 보듯 조금 무겁다.

심학(心學)이 폐하여진 지 오래다. 세속의 선비들은 문장을 다듬는 데 힘쓰는 공부에만 종사하니, 인심(人心)이나 도심(道心)과 같은 크게 긴요한 공부에 대해서는 비단 장님이 보불(繡繡)⁶⁷⁾을 보고, 귀머거리가 피리소리와 북소리를 듣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비록 혹 우뚝하게 뛰어난 재주가 있어 억지로 설명한다 해도 월(越)나라에 가는 장보(章甫)⁶⁸⁾에 가깝지 않은가!⁶⁹⁾

이 발문은 19세기의 유교문화와 관련지어 해석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첫 부분에 보이는 “심학(心學)이 폐하여진 지 오래다”라는 말이 주목된다. 아쉽게도 <천군본기> 외에 작가가 당대 19세기의 사회와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고찰하는 데 도움을 줄만한 다른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발문에 따르면, 그가 당대의 사대부들이 성리학적 심성론

67) 보불(繡繡): 임금의 대례복(大禮服)에 놓은 수(繡). 즉,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뜻한다.

68) 월(越)나라에 가는 장보(章甫): 쓸모없다는 뜻. ‘장보’는 중국 사대부의 의관(衣冠)이다. 송(宋)나라 사람이 의관을 차려 입고 월(越)나라에 갔으나, 그곳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고 머리 카락도 기르지 않아 의관이 아무 쓸모없었다고 한다.

69) “心學之弊, 久矣. 庸儒俗士, 從事於尋摘之學, 而於人心道心大頭腦處, 不啻瞽者之繡繡, 聾者之笙鏞. 雖或有卓犖不羣之才, 強爲之說, 不幾近於適越之章甫哉!”

과 같은 도학(道學) 공부로부터 멀어진 풍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천군본기서」(天君本紀序)의 다음 부분에 표명된 작가의 관점이 주목된다.

선유(先儒)의 말은 나무에 비유한다면 뿌리에 해당하고, 물에 비유한다면 수원(水源)에 해당한다. 내가 장차 나무의 가지를 따라가 꽃을 따며, 그 흐름을 따라서 물결을 일으켜,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좁은 소견이나마 시험해 보는 것 또한 불가(不可)할 바 없을 터이다.⁷⁰⁾

인용문에서 작가가 나무의 뿌리이자 물의 수원(水源)에 비할 만큼 중시한 ‘선유(先儒)의 말’이란 일차적으로 유교의 경전(經典) 및 성리서(性理書)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작가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에 충실하게, <천군본기>를 창작하면서 ‘경학적 지식’을 다채롭게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춘추』(春秋), 『사기』(史記), 『한서』(漢書) 등에 나오는 ‘역사적 지식’ 또한 대거 활용하였다. 그러한 종합적 결과로서, <천군본기>는 앞 장에서 고찰하였듯이, 주(注)를 활용하고, 역사서의 체재를 취한 독특한 형식의 천군서사가 되었다.

이처럼 허구적 서사임에도 불구하고 주(注)를 활용하고, 역사서의 체재를 취한 <천군본기>의 시도는 천군서사의 사적(史的) 전개 내에서는 다소 파격적인 것이지만, 19세기의 소설 및 서사 전반으로 시야를 확장하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몇몇 발견된다.

먼저 주의 활용과 관련하여, 19세기 한문소설 <옥선몽>(玉仙夢)의 경우가 참조된다. 이 작품은 협주를 활용하여 작중에 인용된 여러 문헌의 출처와 내력을 밝혔다.⁷¹⁾ 한편 한글소설 중에는 <명행정의록>의 경우가 적극적으로 주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명행정의록>에는 총 170여 대목에 협주가 보이는데, 이 협주는 서사의 문맥을 해설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70) “先儒之言，譬木則根也，譬水則源也。余將達其枝而采其華，涉其流而揚其波，聊試窺管之見，亦無所不可。”

71) 서경희, 「옥선몽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54~155면 참조.

고증하거나, 인명(人名)과 지명(地名)을 지정하거나, 자구(字句)를 풀이하는데 활용되었다.⁷²⁾ 한글소설 중에는 조금 앞선 시기에 창작된 <완월회맹연>에서처럼 주가 활용된 경우가 더러 보이기는 하지만,⁷³⁾ <명행정의록>의 경우 다른 한글소설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양적으로 많은 주가 활용되었다.

한편 <천군본기>에 앞서 ‘本紀’라는 제목을 내세우며 역사서의 체재를 취한 서사 작품으로, 18세기에 창작된 조귀명(趙龜命, 1693~1737)의 <화왕본기>(花王本紀)와 이안중(李安中, 1752~1794)의 <안제본기>(雁帝本紀)가 있다. <화왕본기>는 모란꽃을 의인화한 작품으로, 『서경』(書經)의 전거와 문체를 주요하게 활용하였다.⁷⁴⁾ <안제본기>는 기러기를 의인화한 작품으로, 조귀명의 <화왕본기>를 의식하면서 『춘추』의 전거와 문체를 주요하게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이 작품들은 단편인만큼 <천군본기>와 동렬에서 비교하기 어려운데, 최근 소개된 김예연(金禮淵)의 <화왕본기>(花王本紀)가 19세기 작품으로서 주목된다. 이 작품은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이나 『동의보감』(東醫寶鑑)과 같은 책에서나 볼 법한, 수많은 약초(藥草)를 등장인물로 의인화함으로써, 장편의 서사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⁷⁵⁾

그렇다면 <천군본기>의 독특한 면모로서 간주된 주(注)나 역사서 체재의 활용을 당대의 학술 문화적 경향과 관련하여 해석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19세기는 전례 없이 다양한 지식이 생산되고, 확대되고, 유통되던 시기였다. 그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18세기 후반 이래 조선에서 고증학적(考證學的) 관심이 급증하였던 현상이 놓여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에서 고증학이 사상사 내부에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7~18세기 무렵이지만,⁷⁶⁾ 조선의 경우는 그보다 조금 늦은 18세기 후반 이후부터 고증학풍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세기 한국의 유교문화는 성리학 일변도에서 탈피해 가는 한편, 경전과 역사서에 대해서도 ‘지식’[知]의 대상으로서

72)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15~130면 참조.

73)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태학사, 1998), 49~50면 참조.

74) 이홍식, 「동계 조귀명의 화왕본기 연구」(『한국언어문화』 26, 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참조.

75) 양승민, 「국문 창작 가전체소설 <화왕본기>와 그 한문번역본」(『고소설연구』 29, 고소설학회, 2009), 206~213면 참조.

76) 벤저민 엘먼,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양희웅 역, 예문서원, 2004), 155~228면 참조.

접근하는 새로운 태도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천군본기>에 보이는 ‘지식’[知에 대한 넘치는 관심, 즉 박학적(博學的) 경향은 한국 유교문화의 19세기적 산물로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조선의 경우 성리학풍이 워낙 강고했으므로 청조(淸朝) 고증학의 수용은 ‘송학(宋學)=성리학’과 ‘한학(漢學)=고증학’의 절충, 즉 ‘한송절충론’(漢宋折衷論)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⁷⁷⁾ <천군본기>의 작가가 ‘지식’(知)에 대한 넘치는 관심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심학’(心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고는 한국의 유교문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문학 양식인 ‘천군서사’에 주목하여, 먼저 그 개념 규정 작업을 시도했으며, 이를 기초로 <천군본기>가 보여주는 글쓰기 방식의 특징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천군서사의 긴 역사에서 이 작품이 점하는 독특한 위상을 파악하는 한편, 이 작품이 한국의 19세기 유교문화 내지 학술문화의 추이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앞으로도 필자는 한국의 유교문화와 천군서사가 맺고 있는 내적 관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역사적 양상을 구체적인 작품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는 그 일환으로서 시도된 것이다. 본고의 미진한 점들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77) 김문식, 「조선후기 경기학인의 한송절충론」(『東洋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5) 참조.

참고문헌

1. 자료

- 鄭琦和, 『心史』,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청구기호 BC 高朝 17-175의 제1책)
 _____, 『心史』,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활자본(청구기호 BC 高朝 17-175의 제2책)
 _____, 『心史』,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활자본(청구기호 BC 高朝 17-51)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寓言寓話小說』, 장호현 외 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수성지·천군본기』, 김광순 역, 형설출판사, 1979.
 『천군소설』, 김광순 역, 한국고전문학전집 2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司馬遷, 『사기본기』, 김원중 역, 민음사, 2010.
 _____,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82.
 『四書五經』, 北京: 中華書局, 2009.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2005.

2. 논저

- 장혜규, 「천군계 작품의 사적(史的) 고찰」, 『정신문화연구』 31, 정신문화연구원,
 2008.
 김광순, 「天君本紀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78, 국어국문학회, 1978.
 _____, 「정기화의 생애와 문학」, 『한국의인소설연구』, 새문사, 1987,
 _____, 『천군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80.
 김문식, 「조선후기 경기학인의 한송절충론」(『東洋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5, 성균
 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5.
 김수영, 「『天君紀』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서경희, 「옥선몽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안병설, 「이조(李朝) 심성가전(心性假傳)의 전개(展開)와 그 성격(性格)」, 『한국학
 논총』 1,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78.
 안세현, 「15세기 후반~17세기 전반 성리학적 사유의 우연적 표현 양상과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양승민, 「국문 창작 가전체소설 <화왕본기>와 그 한문번역본」, 『고소설연구』 29,

고소설학회, 2009.

이동근, 「조선조(朝鮮朝) 심성가전(心性假傳)의 연구(研究)」, 『고소설연구』 1, 고소설학회, 1995.

이홍식, 「동계 조귀명의 화왕본기 연구」, 『한국언어문화』 26, 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장호현, 「形成期 古典小說의 전개와 寓言文學」, 『한국 고전문학의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조현우, 「천군본기 연구」, 『국제어문』 37, 국제어문학회, 2006.

벤저민 엘먼,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양희웅 역, 예문서원, 2004.

金建仁, 「天君小說與心性學」, 『韓中人文科學研究』 8, 韓中人文科學研究會, 2002.

Korean Confucian culture and Cheon-goon narrative

-in case of *Cheon-goon-bon-gi*

Kim. Soo-young

In this thesis, I examined the inner relation of Korean Confucian culture and Cheon-goon narrative, focusing on in case of *Cheon-goon-bon-gi*.

Following three conclusions are deducted. First of all, the transcribed *Cheon-goon-bon-gi* which is owned by national central library of Korea is the base text of the printed *Cheon-goon-bon-gi* which is also owned by national central library of Korea. Second of all, *Cheon-goon-bon-gi* used a lot of annotation over 130. And *Cheon-goon-bon-gi* took the format of history. It revealed that the writer Jung, Giwha made an effort to show off his knowledge of Confucian classics to some degree. Third of all, such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f *Cheon-goon-bon-gi* is related with the characteristic of 19th century's Korean Confucian culture that puts emphasis on knowledge.

Key words: Korean Confucian culture, Cheon-goon narrative, *Cheon-goon-bon-gi*, the knowledge of Confucian classics

접수일자: 2010. 8. 30 심사기간: 2010. 8. 30~2010. 11. 20 게재결정: 2010. 11. 20
